

2005 한인회보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한인 커뮤니티.

손에 손잡고 세대의 벽을 넘어서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American Association

가고파

- 이은상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린 제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오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고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데 얼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울고 지내고저
그 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물 나면 모래판에서

가재 거이랑 달음질 치고
물 들면 뱃장에 누워

별 헤다 잠들었지
세상 일 모르던 날이

그리워라 그리워.
여기 물어 보고 저기 가 알아 보나
내 뉘엿 즐거움은 아무데도 없는 것을
두고 온 내 보금자리에

가 안기자 가 안겨.

처녀들 어미 되고

동자들 아비 된 사이
인생의 가는 길이 나뉘어 이렇구나
잃어진 내 기쁨의 길이

아까와라 아까와.

일하여 시름 없고

단 잠 들어 죄 없는 몸이
그 바다 물소리를

밤낮에 듣는구나
벗들아 너희는 복된 자다

부러워라 부러워.

옛 동무 노 젓는 배에 얻어 올라 치를 잡고
한바다 물을 따라

나명 들명 살까이나
맞잡고 그물 던지며

노래하자 노래해.

거기 아침은 오고

또 거기 석양은 저도
찬 얼음 센 바람은

들지 못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 알몸으로 살거나

깨끗이도 깨끗이.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또 하나의 한류열풍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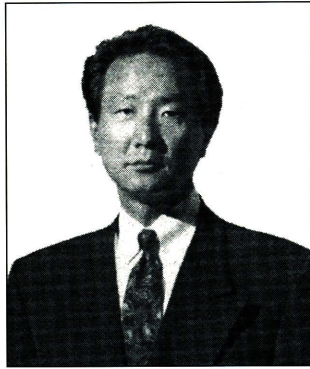


운사마로 일본이 난리고
대장금의 열풍은 동남아를 넘어 이곳 미국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인, 이번엔 우리가 보여 줄 차례입니다.
그 어느 타민족 커뮤니티보다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일
그리하여 1.5세, 2세에게 자랑스런 어른들로 기억되는 일 -
그것이 우리가 보여 줄 또 하나의 한류입니다.

한인회는 단순히 한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한인회는 한인들의 복리와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우리의 힘입니다.
열린 한인회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임기를 마치며...”



서영민 회장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이미 2년이란 시간이 흘러 저는 시애틀 워싱턴 주 한인회장 임기를 마치며 송구스러우나 이 자리를 빌어 이제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 저 합니다. 돌아보면 24개월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아랑곳없고 보란 이 흐르는 세월의 빠름에 절로 연민과 탄식의 소리가 우러나오는 듯 합니다. 제가 한인회장이란 중책을 맡을 때 저는 임기 시작부터 저 자신이 이러한 중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한인회는 어느 한 개인보다는 다수의 협동체 조직인 만큼 같이 수고해 나갈 여러 임원들의 협조가 있다면 부족하나마 맡은 바 임무와 한인회 차원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냉철히 저 스스로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지난 2년간의 회장으로서의 임무 평가는 적지 않으신 동포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란 화술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직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변론을 잘하면 유능한 변호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사전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것과는 달리 강한 실천력과 묵묵한 봉사정신을 필요로 하는 한인회장이란 자리를 생각할 때 동포사회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도 없이 의욕만으로 여러 가지 실현되지 않은 장미 빛 청사진을 펼친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에야 한인회장이라는 직책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화려한 계획보다는 묵묵한 실천이 더 필요한 자리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임기가 끝나는 무렵에서야 터득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이제는 뭔가 알듯한데” 하니 이미 “기회는, 시간은 지나갔다” 라고 자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진정 바라옵기는 비록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로부터 넓은 관용과 이해로 “그래도 수고했다” 라는 따스한 배려의 눈맞춤을 부탁 드립니다. 하며, 지난 2년간을 같이하여 주시며 목소리 한번 높이 지 않고 음지에서 사심없이 봉사와 협동의 자세로 용기를 불어 넣어준 손동학 이사장과 임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마음깊이 우러나오는 존경을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회장으로서 “복”으로 생각하는 귀한 만남인 권지연 한인 전문인 협회 회장/KAPS, 이진경 한인 생활 상담소 소장/KCCC 과 황준영 챔피언 태권도 관장 및 그분들의 자원봉사 “행동대원” 들, 소위 1.5세대와 2세들로 본 한인회의 여러 행사 때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봉사를 하여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지나온 지난 2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동포사회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한인회에 대한 더 많은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권고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역시 “프로다우시게 항상 부드러운 “원 라이너 오프닝” 화술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편하게 해 주시는 김재구 주시애틀 대한민구 총영사관의 총영사님께 본 한인회의 위치와 관계를 한층 더 격상하여 주신 것에 대해 한인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한인회를 “위함”이 바로 동포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누구도 강조하시는 총영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또 문창부 영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회 및 타 단체들과 동포사회 그리고 본구정부를 대표하는 총영사관과의 유대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행사 실무를 조용히 수행하시며 정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전임 회장단 및 한인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선에서 함께 수고하셨던 여러 단체장님들과 그 단체 회원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런 이유 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포사회 대표단체의 책임자로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한인회의 “대표성”을 현실적, 실질적으로 술선수범 보여드리지 못하였음을 무척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품고 있던, “다목적 한인회관 설립/이전”, “통합 한인회”와 “한인회에 대한 전체적인 동포 사회의 관심사 제고” 등의 과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뒷전에서라도 도움이 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글을 맺으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본 한인회와 동포사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제 39대 김기현회장, 임광희 이사장 및 임원 여러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협조의 박수와 인사로 그분들의 무거운 발걸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옵고 경애하는 동포 여러분들께 늘 강건, 평온, 및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영민 올림
제 38대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CHRISTINE O. GREGOIRE
Governor

STATE OF WASHINGTON
OFFICE OF THE GOVERNOR

P.O. Box 40002 • Olympia, Washington 98504-0002 • (360) 753-6780 • www.governor.wa.gov

Greetings from the Governor

December 10, 2005

I am pleased to extend my warmest greetings to all of those attending Arirang Night, hosted by th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I am confident that you and your loved ones will greatly enjoy this evening of camaraderie, entertainment, and wonderful food.

Celebrations such as these enrich us all. They bring the community together in a spirit of fun and fellowship. They encourage the audience to gain a greater understanding of, and appreciation for, the rich and beautiful Korean culture. And they remind us that diversity is one of our state's greatest strengths.

I commend th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or making this night possible, and for bringing heightened recognition to the important contributions that Korean Americans have made to society. I applaud their commitment to serve their culture, as well as their sponsorship of various events that enrich and benefit the community.

Again, thank you for coming.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a joyful evening, and for happiness and prosperity in all the years to come.

Sincerely,

Christine O. Gregoire
Governor



축사



금번 아리랑의 밤은 제가 이곳 시애틀 총영사로 부임한 이래 3번째 맞이하는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의 전통 연례 행사입니다. 저는 바로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부임, 새로운 백 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한인동포 사회의 역동적인 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미주 한인 정체성과 미래에 관한 학술대회였는데 그 발제문과 토론내용 등이 사장되지 않고 이렇게 고스란히 책자로 출판되었습니다. 호수에 떠있는 오리들이 한가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면 아래에서 쉴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밤과 출판기념회가 이렇게 성대하게 열릴 수 있게 된 데에는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임직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을 것인바, 그들의 헌신을 치하합니다.

2005.11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 김재국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for holding its annual Arirang Night Banquet. This year's event is special.

Since I was assigned here as the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centennial of Korean American Immigration in 2003. I have seen the local Korean American community sailing confidently toward another centennial through witnessing every aspect of their vital activities.

For instance, in October 2003, a symposium sponsored by the Association entitled "Korean American Identities: A Look Forward" was held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This symposium commemorated the centennial of Korean American Immigration.

It is a great pleasure to join you in celebration of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book, a compilation made possible through the symposium. This telling and intriguing volume is sure to make a difference. Every library should have a copy.

In addition to law and medicine seminars, the Association has encouraged youth talk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The association's devotion to Korean youth is evident in this year's theme "Hand in Hand, Generation United".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rough events such as this the ties between the generations will continue to grow and expand. Through strengthening our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we all become stronger.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and enjoyable banquet.

Sincerely,

Jae-Gouk Kim
Consul General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4705

December 10, 2005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1200 South Angelo Street
Seattle, WA 98108

Dear Friends,

I am writing to congratulate you on another year of celebrating the activities and accomplishments of Korean Americans throughout Washington State with your organization's annual Arirang Night Banquet. Though I am unable to attend your event I would like to thank your organization for promoting the rich cultural heritage of Korean Americans.

I commend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for its efforts to link together Korean American citizens of all generations. Your efforts to provide important and vital services such as free legal and medical seminars for Korean Americans are making a difference.

I congratulate you on another great year of service to this community. The goals of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are commendable, and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greetings and wishes to your members for a successful event this evening.

Sincerely,

Maria Cantwell
United States Senator



Snohomish County
Executive's Office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rirang Night Dinner December 10, 2005

On behalf of the more than 620,000 residents of Snohomish County, I am honored to extend my best wishes to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s you celebrate your **Arirang Night Dinner**.

Here in the Pacific Northwest, we take great pride in our unique quality of life. It is the natural beauty, economic opportunity and cultural diversity of our region that makes the Northwest such a desirable place to live, work and raise a family.

We have a vit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ll members of community have the opportunity to achieve success. I commend you for your continuing contributions to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of Korean-Americans, and for the completion of your book Korean American Identities: A Look Forward.

Best wishes to you all as you celebrate your **Arirang Night Dinner**. May your rich cultural contributions to this community continue to grow and prosper in the years ahead.

Sincerely,

Aaron Reardon
County Executive

훈훈한 커뮤니티를 위하여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다. 뜻이 크고 담대한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는 흠이 있고 반대로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사람은 자칫 큰 뜻을 간직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모름지기 큰 일을 이루려면 보다 크게, 보다 넓게 그리고 보다 깊게 생각 한 후에 뜻을 세워야 하지 않을 까 싶다.

한 바퀴가 100미터인 트랙을 처음부터 5킬로미터를 뛰겠다고 생각하고 뛰면 30바퀴를 돌아도 별로 힘든 줄 모르지만 처음부터 3킬로미터만 뛰겠다고 생각하고 뛰면 20바퀴를 채 돌기도 전에 지치게 된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닐까? 좀더 멀리, 좀더 크게 뜻을 세우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 언제나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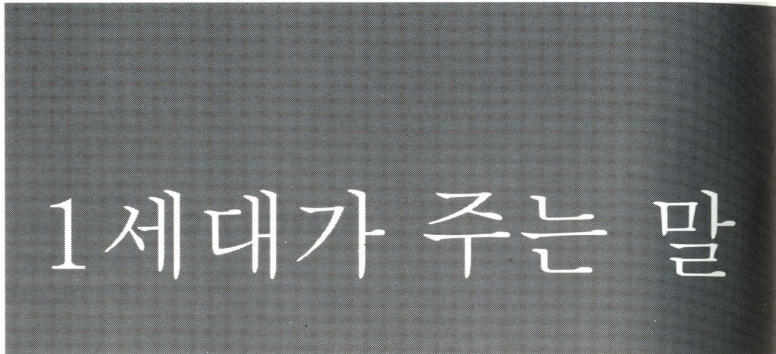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명심해야 할 일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좋은 길 동무가 있으면 아무리 먼 길도 멀어 보이지 않는다. (No road is long with good company)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남을 도와준 일은 도와준 순간에 잊어 버리되 절대 그 보상이나 보답같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래야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되고 도움 받은 사람이 감사의 뜻을 표시할 때는 더욱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법이다.

또 남에게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인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우의가 더욱 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언짢고 피해를 입는 일도 적지않게 생긴다. 이경우 대개 피해를 준사람을 미워하거나 기피하고 또 보복할 것을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게 된다. 더욱 고민하게



되고 심하면 이로 인해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오히려 나를 해친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내 편으로 안아줄 수 있다면 그는 분명 친구는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보다 큰 일을 생각하면 보다 큰 뜻을 펼 수 있게 될 것이다.

옛 성현들은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릇을 재는 척도라고 한 모양이다.

어느 분야에서나 지도자가 되어 남을 이끌고 나가야 할 사람들은 특히 이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큰 뜻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일 수록 좀 더 자상하고 치밀한 면이 있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항상 친구나 동료, 그리고 아랫사람의 신변이나 주위의 일들은 물론 동포사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비록 작은 일 일지라도 절대로 소홀히 다루지 않는 이러한 세심하고 자상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커뮤니티를 훈훈하게 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낙원이 있다. "Paradise is always where love dwells" 라는 금언을 연상해 봄 직하다.

시애틀 통합 노인회 이사장
황 태근

봉사의 참뜻을 깨우쳐준 귀중한 만남

배' 처럼 남아 있다. KoreAm Magazine 편집자가 물었다. 다음 회장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 이라고. 몇 마디에 멋있는 말로 해 줄 말이 없었다. 사회봉사는 '희생' 이다 라는 말을 일상 생활이 예를 들어 말해주었다.

1. 대중연설 공포를 깨기 위해 거울 앞에 서서 연습하기 (Stress로 인해 여드름이 날 때까지)
2. 식구, 친구들에게 "우리는 사랑, 관심 결핍증" "우리도 좀 신경 써 줘!" 라는 하소연을 들을 때
3. 직장 상사가 나의 책상에 들를 때 마다 단체 일을 하고 있어... 이리다가 찢리지 않을까" 라고 자책할 때...
4. 결혼은 언제해요? 라는 질문에 "벌써 했는데 요...일하고" 라고 독백할 때
5. Check Book을 열어보며 "우째 이런 일이! 내가 그랬단 말이야?" 라고 자문할 때...
6. 하루 8시간 Sleeping Schedule을 4시간으로 바꿀 때...
7. 울고 싶을 때 웃는 법을 배우며, 외치고 싶을 때 혀를 잡을 때...
8. 그리고 '남' 의 과오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를 기다려 줬는지 느끼며 자책할 때...
9. 기타등등...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많은 사회봉사자 분들의 생활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사회 봉사 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충을 새삼 깨닫고 나니 모든 분들이 다 위대해 보인다. Public Servant의 희생정신과 마음이 아니면 정말 힘든 부분들... 뒤 늦게나마 깨닫고 이렇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신 '무엇보다 귀중한 만남들' 께 감사 드린다.

권지연 KAPS 2003-2005 회장
Korean American Professionals Society
(한인 전문인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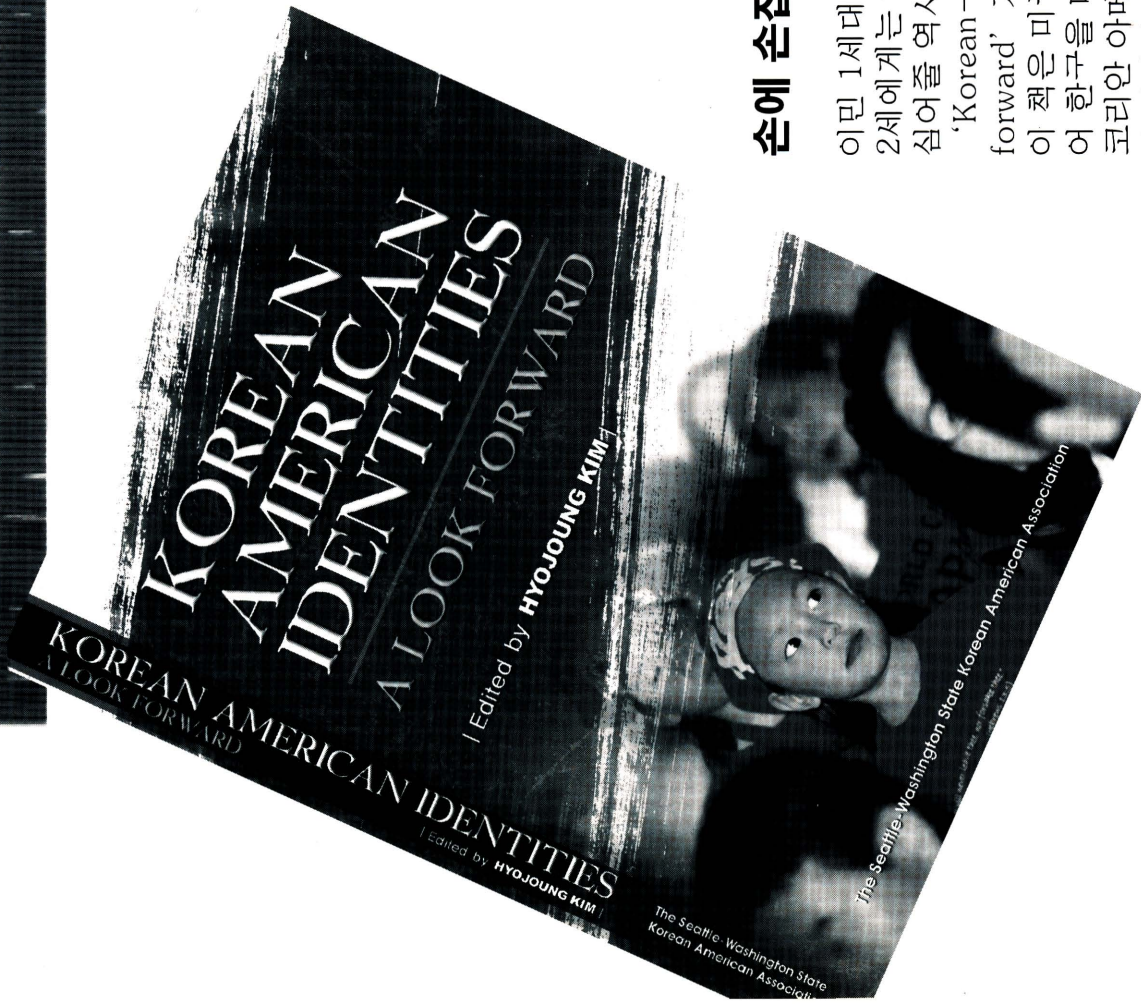
Holiday Season. 송년 마무리 작업의 분주함 속에서 마구 달리는 중 한인 회보를 위해 '한글' 을 부탁 받았다. 오랜만에 Computer Keypad가 아닌 펜을 잡고 글을 쓰니 왠지 진지해지고 'Self reflection' 'Confession' 의 시간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KAPS (전문인 협회) 2년 동안에 회장직을 마감하고 또 2005년도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보니 지난 2년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운 '성장의 시간' 이었다. 여러 해 동안 교회, 직장, KAPS 여러 일과 부서의 일을 맡아 해왔지만 '배움' 을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많이 주는 일이 한 비영리 단체의 '회장직' 이었다. 일단은 내가 좋던 싫던, 편하든 편하지 않든 Comfort Zone밖에 일을 하게 하고, 그 안에 자신 훈련을 하게 하며 내 자신관리가 아닌 Team-Work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했고 무엇보다 '우물 안의 개구리' 의 시야를 많은 만남, 경험을 통해 폭 넓은 시야로 바꾸어 주었다. 모든 위대한 일이 '작은 것' 에서부터 시작하듯,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귀한 만남들이 있었다. 그 만남이 성장해 좋은 '친구' 가 되고 나를 권고, 격려 해주며 인생을 더 높게, 넓게, 깊게 보는 법을 조심스럽게 가르쳐 주었으며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키울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귀한 만남들... 이러한 만남들 속에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 신념, 정체성이런 면들이 점점 속에 변하고 성장케 했다. 2005년 말에 다시 한 해를 돌아본 결과 내 기억 속에 '보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한인 이민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쾌거

“Korean American Identities” 발간



손에 손잡고, 세대의 벽을 넘어서-

이민 1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2세에게는 한구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역사적인 작업인

‘Korean - American Identities - a look forward’ 가 드디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미구 곳곳의 도서관 및 학교에 기증되어 한구를 미구인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민사의 귀중한 역사자료로서 크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미구 이민 100주년 기념

“미주 한국인의 정체성” 발간을 마치며

미 이민 100주년 기념 출판
위원장 홍승주

세계 역사의 개명기에 대한제국을 떠난 초기 이민자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밭의 고용이민으로 갖은 고생을 감내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미 합중국의 역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이민 100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민 1세대들은 미구이란 선진구에서 희망과 풍요의 터전을 발판으로 이 나라에서 꿈을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조국이 어려울 때 서슴없이 동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조국 광복에 헌신했을 뿐 아니라 음으로 양으로 많은 인력과 고금두뇌로 조국을 도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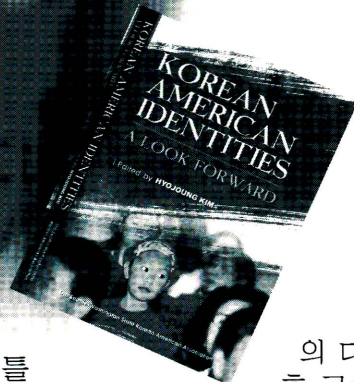
오늘날에는 미구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선진구인 미구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어떤 분들은 새로운 문물을 배워 조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세계 제일의 민족인 만큼 교육적 목적으로 미구를 선택하여 오늘날 세계 유수의 유명 학자와 지도자를 배출하여 학계와 사회에서 맹활약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날이 갈수록 이러한 인재들은 더 늘어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KOREAN - AMERICAN IDENTITY란 제목으로 한구계 미구인들의 오늘과 미래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대비하기 위한 초석을 삼을 수 있는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책에는 우리의 차세대와 후손에게 선배 이민자들의 각고의 노력과 바람을 알려주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권의 책을 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힘든 작업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편집의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김효정 교수 및 여러분들이 그간 기울인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워싱턴주-시애틀 한인회의 지속사업으로 선정하여 계속 책의 내용을 보강해 나갈 일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업이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후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며 또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당부해야 할 것인지, 초겨울 푸켓 사운드의 저물어 가는 황혼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Korean American Identities: A Look Forward 출판에 즈음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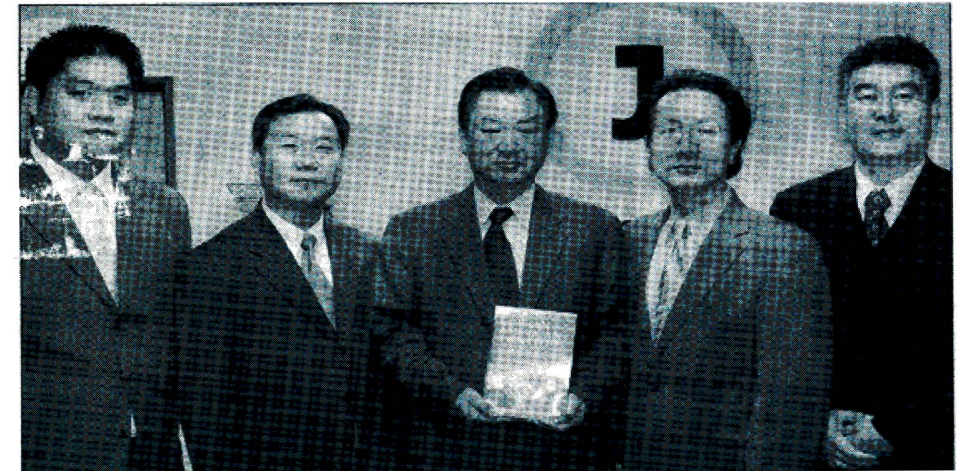
김호정
워싱턴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및 Korean American Identities 편집인

재미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시애틀 한인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처음 심포지움을 기획할 때만 하여도 과연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학술대회는 많은 분들의 열성적인 지원과 참여하에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나아가 이제 그 심포지움 내용을 하나의 책자에 담아 동포 사회에 내어 놓게 되니 감격스럽기 까지 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다면 한인 공동체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본 책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세대로부터 물려 받은 인종적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설문에 응한 한인 2세대 중 상당수는 자신의 한인됨과 미구인됨을 균형있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적지않은 수의 2세대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어느 사회에도 자리매김을 못하는 '부평초' 같은 2세대 또한 없지 않았다. 우리 자녀들의 자기 정체성 이슈는 기우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한인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본 책자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균형있는 자기 정체성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한인의 인종적 자기 정체성은 "다름" (다른 인종과는 다른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과 "같음" (우리는 동일 인종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임에 대한 자각)에 대한 이중적 인식에 기초한다. 그러나 "같음" 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속

의 다양성' 을 간과하기 쉬우며 (정문호 교수), "다름" 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미구이라는 다민족 사회에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에 직면한다 (송승실 교수). 또한 균형성 있는 자기 정체성은 하나의 이상형 또는 '원형' 이 존재하여 이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김은정 교수). 균형성 있는 자기 정체성은, 다른 인종과 열린 마음으로 유대하며, 소속 공동체 구성원이 지닌 다양한 의견과 특징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우리됨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는데 그 출발점이 있다 하겠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한인공동체의 주축은 우리의 자녀 세대로 이전 될 것이다. 이들은 "2세대들의, 2세대들에 의한, 그리고 2세대들을 위한" 한인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세대 우리는 이를 '그들의 문제' 로 수수방관 할 것인가? 책을 준비하며 만난 많은 2세대들은, "가이없는 자녀 사랑과 희생" 을 가장 자랑스러우며 승계하고 싶은 한인의 문화적 특징으로 꼽기에 주저치 않았다. 본 책자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작은 표현이자, 동시에 우리 1세대들의 자녀 사랑이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동체 차원의 노력으로 결실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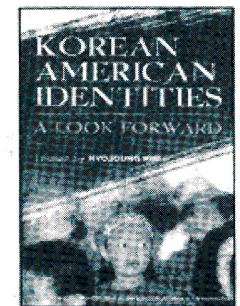


한인 정체성에 관한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을 출간한 한인회 관계자들이 본사를 방문, 서적출간 의의와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한인회 황준영 체육부장, 장용석 정책부장, 홍승주 전 한인회장, 서영민 한인회장, 손동학 이사장.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UW 심포지움 발표문 6편 김호정교수 편집
12월 10일 '아리랑의 밤'서 출판기념회 개최



마주 한인 정체성을 주제로한 전문 논문이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됐다.

‘미주한인 정체성 -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책(사진)은 지난 2003년 워싱턴대(UW)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됐던 한인 정체성에 관한 6개의 주제문을 기초로 하여 UW 김호정 교수가 발행·편집을 맡았다.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서영민 회장은 지난 28일 ‘미국 이민 100주년’이었던 2003년, 시애틀 한인회 차원의 기념서적 제작의견이 나온 후 2년만에 결실을 맺었다’라고 설명했다. 서회장은 ‘한인회가 주관해 이민관련 기념서적이 발간된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자평했다.

장용석 정책부장은 ‘초판 2000여부 중 500여권은 미국 각 공

공도서관 및 학교에 기증되며 타주 한인회와 분국 주요 도서관에도 보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또 ‘당시 홍승주 한인회장에 의해 제안된 기념서적출판은 중간에 편집자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며 이 책이 이민사의 귀중한 자료로 쓰여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손동학 이사장은 ‘12월 10일로 예정된 ‘아리랑의 밤’에 앞서 1부 순서로 책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책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인회를 통해 구입할 수도 있고, 이날 행사를 통해 후원금·한인회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서적출판비용으로 1만달러 이상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아리랑의 밤’은 한인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송년행사로 올해는 12월 10일 아시안 리소스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 책에는 UW 사회복지학과 송승실 교수, 역사학과 정문호 교수, 간호학과 김은정 교수, UW 대학원생 도호정(국제학), 홍승혜(사회복지학)씨, 학부 학생 박정준씨의 발표문이 칼라 회보 등과 함께 실려있다.

이형우 기자



Metropolitan King County Council

PROCLAMATION

WHEREAS, on March 1, 1919, the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was publicly proclaimed in Pagoda Park in Seoul, Korea; and

WHEREAS, this event marked the beginning of a nationwide movement that ultimately led to a sovereign Korea; and

WHEREAS, the suppression of the movement led to thousands of deaths and up to 45,000 arrests; and

WHEREAS, the organizers for this event—Buddhists, Christians, and members of Ch'hondogyo alike—set aside religious and class differences and encouraged a peaceful, popular resistance; and

WHEREAS, there are now more than 2,000,000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and with a population of over 50,000 in King County alone, Korean Americans play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strength, vitality, and development of our region;

NOW, THEREFORE, we, the Metropolitan King County Council, proclaim March 1, 2005, to b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AY

in King County, and we encourage all citizens to acknowledge the accomplishments of our Korean community and support the celebration of this important day.

DATED this first day of March 2005.

Larry Phillips, Council Chair

Pete von Reichbauer, Council Vice Chair

Bob Ferguson, District Two

Dwight Pelz, District Five

Dow Constantine, District Eight

Larry Gossett, District Ten

David Irons, District Twelve

Carolyn Edmonds, District One

Kathy Lambert, District Three

Reagan Dunn, District Six

Steve Hammond, District Nine

Jane Hague, District Eleven

Julia Patterson, District Thirteen



3월1일을 한국 독립의 날로 선포!

미구 주류 사회가 날로 성장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메트로 킹 카운티 의회 선언서

1919년 3월 1일, 서울의 과고다 공원에서 한국의 독립을 알리는 선언문이 공표되었으며 이것은 한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전국적인 독립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으로 수천 명의 목숨과 45,00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일제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불교, 기독교, 천도교가 힘을 합하여 종교적 이념과 계급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평화적이며 대중적인 저항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미구에는 2백만이 넘는 한국계 미구인이 살고 있으며 킹 카운티에 만도 그 인구가 5만명에 달하는 바, 이분들은 킹 카운티에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고 킹 카운티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높이 기려 킹 카운티 의회는 2005년 3월 1일을 한국 독립운동의 날로 제정, 이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또한 킹 카운티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한국 커뮤니티가 끼친 공헌을 인식하고 이 의미 깊은 날을 함께 경하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저희 베스트 웨스턴에서 드립니다.

Best Western Alderwood



- 시애틀의 북쪽 15분 거리에 위치한 린우드 I-5와 I-405 교차점
142개의 넓고 깨끗한 객실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얼더우드에서 불과 2 블록거리
다양한 메뉴의 무료 아침 식사 제공
8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회의실
무료초고속 인터넷 사용가능
다채널 케이블 TV
전화 음성 녹음 서비스
금연 객실 선택 가능
한국어/알어 서비스 가능

예약 및 문의: 425-775-7600
19332 36th Ave W. • Lynwood, WA 98036





지난주 시애틀 지역 한 노인회에서 신년을 맞은 조촐한 신년 축하모임이 열렸다.

지역에 따라 주 1회에서 2회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점심 한끼를 같이 하는 것으로 소일꺼리가 없는 한인노인들에게는 참가하는 것이 유일한 낙의 대상이 되고있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식 음식을 먹을수 있다는 점으로 운송수단이 별로 신통찮은 노인들도 어렵게 도보로 또는 버스편으로 시간이 걸려도 성의있게 참여해 한때를 보내고 귀가한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차량편이 있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원거리에서 한시간 가량의 모임을 위해 두 두서너시간의 고역도 아랑곳 없이 참석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노인회 모임의 간물이 위치한 거리를 지나다보면 한인노인들이 노인회에서 지급한 제품품 보통이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흔히 많이 볼수 있다.

어느 노인은 북쪽 스노호미시의 노인회에 참석하고 다음날은 시애틀 차이나타운의 통합노인회까지 와서 한역할을 하고 돌아가는 부지런함을 보인다.

타코마 지역 어느 노인도 타코마노인회에 참석하고 북쪽 스노호미시노인회까지 원정도 불사하는 기상한 정신을 보이기도 한다. 미국생활에서 건강과 재력도 갖추고 돌봐주는 자녀들이 있다면 남부러울것 없는 생활을 하는 조건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것도 한인노인들이다.

말 안통하고 운전못하고 품짹없이 간혀사는 노인들에 미국생활은 노인에 따라 ;참살 없는 감옥 이라는 말에도 해당되게 된다.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에 가장 두려운것이 병고와 그중에 치매증세이다.

기억을 잃고 거리를 헤매다 차에 치이는 한인노인들이 부지기수이며 지난 달에도 시애틀거리에서 차에 부딪친 노인이 요행히 큰 부상을 면하기도 했다.

수년전 타코마에서 길을 건너다 뺑소니 차에 치어 숨진 어느 노인의 죽음은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망각의 시간속으로 묻혀버렸다. 답답한 미국생활에서 더욱 돌봐주는 자녀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 노후생활은 더욱 딱하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독지가들의 지원으로 버젓한 노후 아파트나 요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노인들의 아파트는 대한부민회가 지은 몇십가구 안되는 주택이 전부이며 시애틀 일본아파트에서도 거주하는 더부살이 노인들이 거의 한국노인들이다.

어느 노인회는 빌려준 건물주가 한국음식 조리를 금지해 찬밥먹는 신세를 면치못하다 겨우 승인을 받았다.

지난주 시애틀 한인회가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새 회관을 건축하는 계획을 시작할것은 한인들의 변변한 건물이 없는 현실에서 희망을 실어주는 소식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한인관련 대형 모임이나 공연을 할때면 장소가 없어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하고 수백명 연말행사 주최하는데 장소 선정이 안돼 베트남 민족의 장소를 어렵게 빌려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인들의 이런 약점을 알게된 건물주들이 붕을 만난듯 어느 클럽은 하루 빌리는데 수천불의 비용을 바가지 씌우고 이 구실 저 구실 붙여 수백불씩 더 뜯어가는 소행도 서슴치 않는다.

회관 건축비도 20여만불이 적립돼 있고 80만불의 가치가 있는 현건물을 처분할 경우 1백만불 이상의 기본경비가 마련되는 한인회가 행사 장소빌리러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고역을 어느때까지 지속할것인가.

금년도 우선 착수할 일은 이를 위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것이다.

한인노인뿐 아니라 모든 한인들이 마음놓고 모임을 가질 회관마련이 금년도 과제로 우선할때이다.

데스크 칼럼 최민희 편집국장 한인들의 모임장소



사업 효율성 극대화 추진

단체간 반목, 갈등 피하고 대화로 적극 협력키로



김 칼리우스키 시애틀 경찰국장이 지난 4일 저녁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열린 단체장 및 기관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첫 단체·기관장 간담회 참석자들 다짐

올해 첫 단체·기관장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인 사회의 리더들이 열심히 논의하고 협력해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미국 대통령, 캐나다 수상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젊은 정치인들을 양성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장은 "한인 사회의 리더들이 열심히 논의하고 협력해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미국 대통령, 캐나다 수상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젊은 정치인들을 양성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장은 "한인 사회의 리더들이 열심히 논의하고 협력해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미국 대통령, 캐나다 수상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젊은 정치인들을 양성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 February

- 1일 총영사, 부총영사 신년 간담회 참석
- 2일 한인 변협 연례 만찬 초청 참석
- 4일 2005년도 제 1회 단체장 회의 개최
- 5일 타코마 한인회 "한인의 밤" 행사 참석
- 7일 한인회관 이전 준비위원회 2월 정기모임
- 16일 제2회 임원회의 개최
- 25일 한인 전문인 협회 신년 상견례 행사 참석
- 28일 한친회 신년 상견례 참석

“신디류를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류창명 보험 206-362-8828
206-363-7040(Fax)

3 March

- 1일 제 86주년 3.1절 기념식 거행 (아시아 리소스 센터)
- 3일 한인 유권자 협회 신년 상견례 만찬 참석
- 4일 한인회 서북미 연합회 회의 참석
- 5일 서북미 한인회 연합회 회의참석
- 8일 한인회관 이전 준비위원회 참석
- 24일 제3회 임원회 개최
- 25일 축구협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29일 대한항공 시애틀 지점 개점행사 참석
- 31일 전 미구 대학생 협회 (KASCON)참석



님의 침묵



만해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 갔습니다.
날카로운 찢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더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코리아 포스트
The Korea Post

서북미 / 로컬

“2 세들에게 국가의식 고취시키자”

제 86주년 3.1절 기념식 시애틀-타코마서 열려

제86회 3.1절 기념식이 지난1일 시애틀과 타코마에서 각각 열려 선열들의 삼일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시애틀한인회 주최로 아시아 리소스 센터에서 기념식이 있었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86년전 33인에 의해 선포되었던 독립선언문이 황태근 통합노인회 이사장의 낭독으로 이어졌으며, 김재국 총영사가 대독한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문제를 언급하면서 과거 한일 협정의 부당성을 찾아내고 과거 한일 협정의 부당성을 찾아내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가간의 협정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관을 벗어 인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민 한인회장은 기념사에서 “통합 한인 학교를 통해 애국심을 심어 주어 국가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오준걸 한인회 회장의 축사를 끝으로 삼일절 노래와 단세삼장이 김수영 통합노인회 회장의 선창으로 힘차게 이국 시애틀 하늘에 메아리쳤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김재국 총영사는 서명민 회장에게 키크운티 의회가 삼일절인 3월1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한 의회 선포 인증서를 전해주어 더욱 뜻깊은 날임을 상기시켰다. 기념식 후 한인회가 마련한 도시락으로 모두 점심을 나누었다.



시애틀 한인회에서 개최한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한인들이 삼일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합동행사 바람직”

이러 타코마 한인회도 이날 오후 5시에 타코마 한인회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각계 각종의 내빈을 모시고 치뤄진 이번행사에서는 국가선열들에대한 묵

념과 독립선언문 낭독, 김재국 총영사의 대통령 기념사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3.1절 노래부르기에서는 가사를 모르는 어린 청소년들도 진지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박남표장군이 태극기를 들고 단세 삼창을 하는 것으로 3.1절 행사는 모두 마쳤다.

이번에도 워싱턴주에서는 시애틀한인회와 타코마한인회가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따로 치루어졌지만 거리상이라는 이해의 폭을 좁혀 다음행사는 한곳에서 한민족으로서 다같이 치루어지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들이 참석자 사이에서 오고 갔다.



4 April

- 5일 정기 한인회관 건축위원회 참석
- 6일 제4회 임원회 개최
- 7일 2005년도 제 2회 단체장회의 개최
- 9일 한우리 축제 후원의 밤 참석
- 22일 남대구 시의원 방문 일행 한인회장 만찬
- 23일 무료 법률 상담 (시애틀 생활상담소)
- 28일 종교지도자 초청 만찬 참석 (총 영사관저)



5 May

- 4일 제5회 임원회 개최
- 6일 장한 어버이상 및 사회봉사상 시상식 참석
- 7일 워싱턴주 OB축구단 친선경기 참석
- 9일 시애틀, 벨뷰 통합 한인학교 기금모금 만찬 참석
- 11일 아시아나 항공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 12일 페더럴웨이 하우리 축제 참석
- 14일 한인회 회장배 축구대회 개최
- 16일 총영사관 주관 UW 한구학 살리기 만찬 참석
- 19일 KAVA 이사회 참석
- 23일 제6회 임원회 개최
- 26일 제2회 단체장 회의 참석



종이로 꿈꾸는 세상 -
ShinHo Paper

2005년도 아리랑의 밤과
Korean American Identities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ShinHo USA Inc.
tel 206 439-1861
16300 Christian Rd. #205
Seattle, WA 98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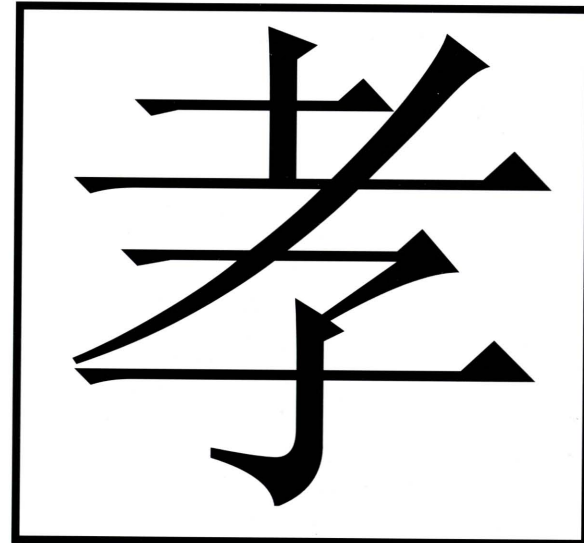
6 June

- 2일 대한항공 시애틀 취항 기념식 참석
- 4일 효도관광 모국방문단 출발 환송
- 4일 한인학교 서북미 연합회 백일장 시상식 참석
- 9일 김간난 여사 1주기 추도식
- 10일 중앙은행 린우드 지점 개점식 참석
- 10일 효도관광 모국방문단 귀환
- 12일 셋별 문화센터 3주년 기념식 참석
- 14일 극단 미리암 공연 (한인회 후원)
- 15일 시애틀 한인회 정기모임 참석
- 17일 KAPS 기금모금 만찬 참석
- 23일 2005년도 6월 정기 이사회 개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덕입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주최한 모국방문 효도관광 안내 광고



우리의 날개 Korean Air 시애틀 취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버이를 위한 '한인회'의 아주 특별한 효도관광

맛따라 맛따라 - 6박7일 총정, 전라 모국 여행

시애틀 한인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를 공경하는 미증양속을 더욱 함양하기 위해 효도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남도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아주 특별한 모국방문 여행-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4일

제작 부담을 덜기 위해

.049 + tax

1일 (6/4)
대한항공 직항편을 타고 공에 그려진 고국으로 날아갑니다. (기내 1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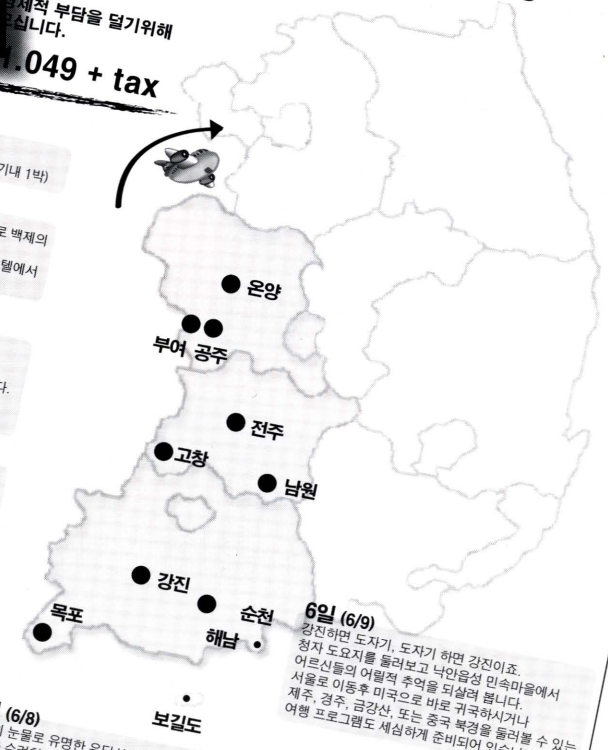
2일 (6/5)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버스편으로 백제의 땅이 서린 부여로 갑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온양온천 관광호텔에서 피로를 풁니다.

3일 (6/6)
공주의 무령왕릉과 국립박물관, 민국의 안이 서린 부여의 낙화암을 돌아보고 맛의 고장 전주로 이동합니다. 전주에서는 전라북도 지사가 베푸는 환영만찬이 기다립니다.

4일 (6/7)
태조 이성계를 모신 경기전, 한국 마을 체험 후 전주의 별미 남원에서 이동 후 순창과 이도령의 전설이 얽힌 광한루를 둘러보고 남원 추어탕으로 점심식사. 고창 선운사, 고인돌 탐사후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풍천 정어구이로 저녁식사.

5일 (6/8)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유달산을 뒤로하고 배를 타면 고산 '운선도'의 유적과 수려한 경치로 이름난 보길도, 해남 '망갈마을'에서 우리나라 최남단에 서보는 색다른 감회를 맛봅니다.

6일 (6/9)
장진하면 도자기, 도자기 하면 강진이죠. 어르신들을 둘러보고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서울로 이동 후 미국으로 바로 귀국하시거나 제주, 경주, 금강산, 또는 중국 북경을 둘러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도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최: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206)767-8071
특별협찬: KOREAN AIR

문의 및 예매처

- Sharp Air (샤프 여행사) 시애틀: (206)464-1995 콜센터: (800)464-5617
- TT Travel (타코마 여행사) 시애틀: (206)443-2120 타코마: (253)582-0303
- Hana Travel (하나 여행사) 시애틀: (206)440-7665 오레곤: (503)644-3976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전화 주셔서 비교하세요!

Jessie Robare Exclusive Agent



최영민 종합보험

자동차 / 주택 / 상가건물 / 사업체보험 / 생명보험 / 은퇴연금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33606 Pacific Hwy S. Street #1-2 Federal Way, WA 98003

약력&경력

- ▷ UW 대학원 (컴퓨터 사이언스 수료)
- ▷ 캘리포니아 주립대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졸업)
- ▷ 현 Allstate Exclusive Agent

Toll Free: 888.661.8977
Federal Way: 253.661.8977
Fax: 253.661.8975
Mobile: 206.228.4447

7 July



우리도 한 폭의 그림
"태권도·탈춤 행진에 관중 환호"
 시애틀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한국팀 참가
 시애틀 센터서 2.6마일 행진 박수갈채

시애틀 센터서 2.6마일 행진 박수갈채
 시애틀 센터서 2.6마일 행진 박수갈채
 시애틀 센터서 2.6마일 행진 박수갈채

- 7일 장태수 자문이사 Shoreline 시의원 입후보 후원의 밤 참석
- 9일 호남 향우회 주최 Golf 대회 참석
- 14일 한인생활 상담소 무료 법률 상담
- 15일 네이션 컵 축구대회 참석
- 21일 제 7회 임원회 개최 (시애틀 행사 관련)
- 28일 중앙일보 주최 Golf 대회 참가
- 29일 라이온스 클럽 회장 이취임식 참석
- 30일 Seafair parade 참가 (100명)

원더풀 코리아!

연도의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낸 Seafair행사 이모저모



미술 사생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와 함께 즐거운 한때





태권도, 탈춤 행진에 관중 환호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한구팀 참가 시애틀 센터서 2.6마일 행진 “박수갈채”



시애틀 센터를 출발해 다운타운 4가 2.6마일을 가로지르는 시페어 축제의 하이라이트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에 한인팀이 참가해 연도의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인팀은 시애틀 한인회(회장 서영민)에서 주관, 챔피언 태권도장 관원 30명, 셋별 문화원 단원 30명 그리고 1.5세들로 구성된 탈춤팀이 합세, 시애틀 한인회 배너를 들고 행진에 참가했다.

총 106개팀이 참가한 이번 퍼레이드에서 한구팀은 89번째로 오후 9시에 출발했다. 늦은 출발이었음에도 4가길 좌우의 많은 관중들은 셋별 문화원의 춤사위와 챔피언 태권도장 관원들의 태권도 시범에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곳곳에 앉아있던 한인들은 한인팀의 등장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6시부터 손자와 함께 나와 한인팀을 기다리고 있던 재임스 김씨는 ‘해마다 시페어 퍼레이드 구경나왔다. 너무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한구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미구 사회에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황준영 태권도장 관원으로 퍼레이드에 참석한 테일러 방(7)군은 ‘태권도를 시작한 지 1년도 안됐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일 수 있었다’ 며 한구사람으로 태권도를 배운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인팀은 매년 ‘왕의 행렬’ 로 퍼레이드를 참석했으나 지난해 부터 비영리 참가 단체팀에 대한 인원제한과 10시 이내에 모든 행사를 마친다는 시간제한에 걸려 지난해 부터 규모가 대폭 축소된 80-90명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8 August

A (2) 2005년 8월 19일 (금요일)

“한민족 단합의 장을 열자”

시애틀, 타코마 한인회 광복 30주년 기념식

60주년 광복 기념식이 지난 13일 오전 타코마 한인회(회장 배기갑) 주최로 이곳 리이크로드 스탬퍼드 호텔에서 있었다. 일부 기념식과 2부 체육대회를 겸한 잔치마당을 벌인 이날 행사에는 주지사인 인사를 포함하여 많은 동포들이 모여 조국광복의 횃불 만세를 불렀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희장은 선열들의 애국심을 본받아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미국인의 한 인물을 서포하고 사는 정신을 갖고고 인사말을 통해 호소했다.

그 밖의 피어스 카운티 의원은 한미양국의 오랜 우정은 변함없이 이어져오며 함께 지역은 민주와 자유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축사에서 밝혔다.

이날 식에서 한인회 집행부는 안병직씨와 토마스김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한인노인회 이병규회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드높이 불렀다. 만세삼창을 넘어 흥분으로 시작된 2부에서 경노 잔치를 벌여 우리 할 일게하고서 귀환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경기에 들어가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열린 8.15기념식에서 순국 선열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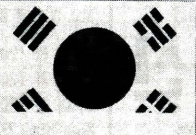
배우시절에서 타코마 새생명교회 가족에서는 시애틀 소양교회가 각각 우승하였으며 우승 선수로 송인복, 송인환씨가 선정됐다.

한편 시애틀 한인회는 15일 오후 7시 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김재국 총경사 대독의 노무현 대통령 8.15경축사를 들었으며 서영민 시애틀 한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곳에서 2-3개월의 애국심과 고위 시책이 있다고 강조하며 나라가 일어나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 청산으로 후세들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인회 오준열회장은 축사에서 일련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친민족의 힘으로 남북통일을 이루자고 외쳤다. 광복을 노래할 때면 서스미시 카운티 노인회 오복희회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함께 부르며 모용영사를 들었다.

- 5일 시민권 강좌 개당 (통합 노인회 회관)
- 10일 차세대 무역인 세미나 참석
- 11일 차세대 무역인 세미나 초청강사로 참석
- 13일 타코마 한인회 광복절 행사 참석
- 15일 제 60주년 광복절 기념식 거행





광복절 60주년 기념행사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에서는
광복절 60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기념행사를 가지고자 하오니 공사간 바쁘신중로
사료되오나 나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소만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특히 이민 1.5세 2세대에게는 우리 민족의
역사교육과 애국심 고취에 산교육장으로 좋은 기회인줄로
사료되오니 동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8월 15일(월요일 오후7시)
■ 장 소 : 본 한인회 회관
1200 South Angelo St. Seattle, WA 98010

주최 시애틀 - 워싱턴주 한인회

나라를 되찾은 날, 광복절. 우리 말과 우리 글도 되찾았습니다.

책 자랑

권태음

할아버지 책 자랑은 어려운 한문 책
그렇지만 그것은 중구의 글이고

아버지 책 자랑은 두꺼운 일본 책
그렇지만 그것은 일본의 글이고

언니의 책 자랑은 꼬부랑 영어 책
그렇지만 그것은 서양의 글이고

우리 우리 책 자랑은 우리 나라 한글 책
온 세계에 빛낼 조선의 글이고



중앙일보 8.17/05 서북미 종합 North

"나라 있어야 자유·권리있다"

시애틀한인회 60주년 광복절 기념식
노무현 대통령 "분열의 시대 종지부" 경축사

총영사등 50여 단체장 참가

'출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가이이 보시려면 어른 남 뱃뱃 어찌하리'

60주년을 맞는 815광복절 노래가 시애틀 한인회관에 울려퍼졌다. 지난 15일 오후 7시 시애틀 한인회관에는 김재국 시애틀 총영사를 비롯, 전·현직 한인회 회장단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 워싱턴주 한인사회는 지난 13일레이크우드 스텔라룸 파크에서 타코마한인회 주최로 815

광복절 기념식을 가진 바 있다. 국민의례에 이어 서영민 시애틀 한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동포 2.3세대의 애국심도 강조되어야 할 때'라며 '나라가 있어야 자유·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국 총영사는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분열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노무현 대통령 815경축사를 대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통한 과거

사 청산을 강조하고 훗날 우리의 후세들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회 오준걸 회장은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잊어서는 안되며 전국민의 힘을 남북통일에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광복절 노래'를 부른후 스노호우시 카운티 노인회 오복록 회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항우 기자




김재국 총영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The Korea Times Northwest Edition 미주판 (A) Friday, October 14, 2005

카트리나 성금 156,400달러

중수사

서북미 한인사회 협력인 큰 성과...교계가 앞장서서 영인 회장, "추가담지 성금은 저진 피해자들에"



한인회 카트리나로 피해 받은 이웃을 돕기 위한 영인회 모금운동에 힘써 156,400달러를 모금했다. 이번 모금운동은 10월 6일 총영사관 주최 긴급 단체장 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작됐다. 서북미 한인회와 교계는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모금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서북미 한인회 회장 서영민은 "추가담지 성금은 저진 피해자들에"

오리건주 집값 하락세?

포틀랜드-유진, 지난달 중간가격 다소 떨어져 전문가들, 개성적 현상일뿐 매매 여전히 왕성

포틀랜드와 유진 등 오리건주 주요지역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포틀랜드와 유진 등 오리건주 주요지역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9 September

- 6일 총영사관 주최 긴급 단체장 회의 참석
- 8일 그로서리 협회 Golf 대회 참가
- 10일 추석 민속예술 공연 참석/ 2005년 미술사생대회 시상식 참석
- 11일 추석 민속예술 공연단 환송만찬
- 13일 제8회 임원회 개최
- 16일 시애틀 통합 노인회 추석 경로잔치 참석
- 17일 서북미 한인회연합회 회의 참석
- 22일 2006-2007년도 회장단, 이사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 모임
- 24일 한인생활 상담소 기금 모금 만찬 참석
- 26일 생활상담소장 및 전문인협회 회장 면담 (2005년도 아리랑의 밤 행사준비)
- 28일 KOAM-TV KVF 의연금 수령 및 인터뷰 지상사 협의회 KVF 의연금 접수 및 면담
- 29일 제 9회 임원회 개최 (아리랑의 밤 준비)
- 100주년 출판기념 및 기금모금의 밤 행사준비
- 30일 라디오 한국, 기독교신문 KVF 의연금 수령 라디오 한국 개구 8주년 기념식 참석



서영민 한인회장이 지상사협의회로 부터 카트리나 성금을 전달받고 있다.

편리한 서비스, 친절한 사람들 www.centerbank.com

중앙은행

중앙은행

편리한 서비스
친절한 사람들-

한인타운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로 고객을 모셔온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들께 더욱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린우드(시애틀) 지점 425.743.7777

시애틀 LPO 425.775.5555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각종 상업 융자(사업체 융자) 상담:
지점장 승관섭: 425.741.8760
Loan Officer 김성완: 425.741.8762
17410 Highway 99, Suite 120, Lynnwood, WA 98037

SBA Loan 및 융자 상담:
시애틀 LPO 매니저 강봉수
425.775.5555
4400 168th St. SW, Suite 101, Lynnwood, WA 98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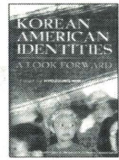


한인 정체성에 관한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을 출간한 한인회 관계자들이 본사를 방문, 서적출간 의미와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한인회 총운영 책임부장, 장영서 정책부장, 홍승주 전 한인회장, 서영민 한인회장, 손용학 이사장.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UW 심포지엄 발표문 6편 김효정교수 편집
12월 10일 '아리랑의 밤'서 출판기념회 개최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이민 100주년 기념서적 발간

10 October

- 3일 KABA (한인 유권자 협회) 이사회 참석
- 4일 라디오 한구, 미디어 한구, 기독교신문사 KVF 성금 전달식 참석
- KOAM-TV, 지사장 협의회 KVF 성금 전달
- 8일 MAVIN 재단 후원의 밤 참석
- 11일 KAVA주최 2005년 주류사회 선거 유세전 참석
- 12일 연방 상원의원 패티뮤리 Bell Town Meeting 참석
- 15일 아태문화센터 회의 참석
- 16일 여성 부동산 협회 한구학 살리기 후원의 밤 참석
- 24일 한구일보, 중앙일보 방문 인터뷰
- 25일 KOAM-TV, 라디오한구, 기독교신문 인터뷰 (100주년 기념출판 및 아리랑의 밤 관련)
- 27일 대한항공 시애틀 지점 리셉션 참석
- 28일 총영사관 방문 (100주년 기념출판 및 아리랑의 밤 관련)

“복은 못 드립니다만 보람은 나눠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수는 10만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인회에 회비를 내주시는 분들은 그지 많지 않습니다.

년 회비 20불은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으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후손을 위해

기꺼이 내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인회는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보람 있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람을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년회비 납부처 : Pay to the order of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S Angelo Street, Seattle, WA 98106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아리랑의 밤

2004년도 아리랑의 밤 사진 및 기사 모음



아리랑의 밤 홍보를 위해 광고 지면을 제공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기섭 부동산 김수영 부동산 김순아 부동산 이미정 부동산
 이희정 부동산 중앙 은행 대한 항공 * 무순



중앙일보

12/7 (화)

서북미 종합 Northw

“손에 손잡고 세대의 벽을 넘어”

시애틀한인회 아리랑의밤 행사 성황 5백여명 한인들이 모여 친목의밤 가져

증정과 만찬후는 UW 한인 대학생들의 보컬 그룹 연주, 위키리씨와 함께 온 최방울, 강희정 씨 등 초청가수 공연순서로 진행됐다.



이테리에서 이민와서 이민생활을 하며 대학졸업후 적은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어려웠던 경험을 밝히기도 한 로시당선자는 한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 워싱턴주가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위키리 가수 관록의 공연무대 아리랑의 밤에서 능숙한 솜씨 보여

70년대 본국의 록가수로 인기를 모았던 위키 리(이한림)씨가 시애틀 한인회 주최 아리랑의 밤에서 관록을 과시, 능숙한 노래와 사회 솜씨를 선보였다.

나이와 맞은 관록한 솜씨를 과시했다. LA에서 활동중인 여성가수 최방울, 강희정과 함께 시애틀에 온 위키리씨는 이곳에서 활동중인 트럼펫 연주자 김석성씨와 세악합의 전희정씨로 악단을 구성, 봉사활동중인 전 세악합회(주흥근씨)의 관공을 받고 3부 행사에 출연, 사회를 맡고 관공을 나누기도 했다.

소닉스 포틀랜드에 설욕 10점차로 승리 조수위 질주

시애틀 소닉스(15승3패)가 11월 마지막 주말 경기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포틀랜드 블래저스를 99대 89로 격파했다. 소닉스는 4일 홈 코र्ट인 키 에라나에서 열린 경기에서 6년 들어 가장 많은 1만7천72명의 홈 관중의 응원을 받으며 설욕을 다짐했으나 관중의 열광으로 여유가 없었다. 제1쿼터와 제2쿼터에서 52득점, 50득점한 포틀랜드에 불과 한 골 차의 리드를 지켰다.

시애틀한인회가 송년행사로 매년 주최하는 아리랑의 밤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의 열띤 분위기가 금년도 한해 봉사도 수고한 임원진들이 참석 한인들에게 인사와 박수를 받았다.

시애틀 지역 한인들이 모여 한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2004년도 아리랑의 밤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의 열기속에 성황을 이뤘다.

오후 6시 아시안 리소스센터에는 5백여명의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말을 가졌으며 초청가수 노래를 연주와 댄스등으로 흥겨움속에 열기를 더했다.

매년 한인회 주최로 송년회 연례행사를 통해 한인들의 단합을 기하는 이번 행사는 12월4일

시애틀 타운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송년회에는 한인회 임원진과 각 부서 부가 참석했다.

이테리에서 이민와서 이민생활을 하며 대학졸업후 적은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어려웠던 경험을 밝히기도 한 로시당선자는 한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 워싱턴주가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워싱턴주지사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 광고를 받은 디노 로시 후보가 아리랑의 밤 행사에 참석, 한인들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리랑의 밤 행사에 이어 두 번째 한인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70년대 본국의 록가수로 인기를 모았던 위키 리(이한림)씨가 시애틀 한인회 주최 아리랑의 밤에서 관록을 과시, 능숙한 노래와 사회 솜씨를 선보였다.

지난 4일 저녁 시애틀한인회가 주최한 아리랑의 밤 행사에 부인과 함께 참석한 디노로시 주지사당선자는 손장록 박사의 통역으로 무대에 올라 2천 아

리랑의 밤 행사에 참석한 로시주지사 후보가 무대에 올라 손장록 박사의 통역으로 한인사회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날 로시후보는 서투른 한국어로 감사했다.

이테리에서 이민와서 이민생활을 하며 대학졸업후 적은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어려웠던 경험을 밝히기도 한 로시당선자는 한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 워싱턴주가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시애틀 타운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송년회에는 한인회 임원진과 각 부서 부가 참석했다.

이테리에서 이민와서 이민생활을 하며 대학졸업후 적은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어려웠던 경험을 밝히기도 한 로시당선자는 한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 워싱턴주가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테리에서 이민와서 이민생활을 하며 대학졸업후 적은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어려웠던 경험을 밝히기도 한 로시당선자는 한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 워싱턴주가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① 중앙일보 13749 Midvale Ave. N. Seattle, WA 98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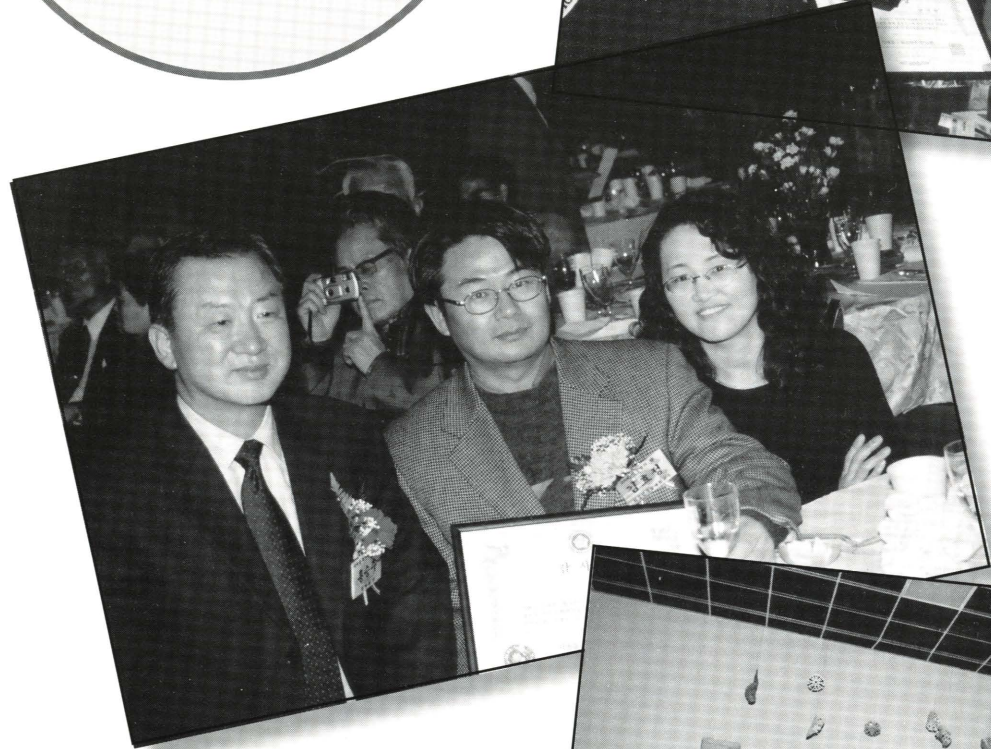
발행인: 정삼주 편집국장: 최민희

대표전화: (206) 365-4000 기사제보: (206) 365-2102(Fax)

The Korea Daily N.W. Edition (USPS 009-892)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Mondays and day after holidays for \$180 per year by THE KOREA DAILY INC. 13749 Midvale Ave. N. Seattle, WA 98133-7008.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eattle, W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N.W. EDITION, 13749 Midvale Ave. N. Seattle, WA 98133-7008.



감사의 마음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밤



세대의 벽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밤





2005년 한인회비 및 찬조금 납부현황 (10월말 현재)

1 월

이광술	100
아풍훈	30
이규길	20
이덕재	20
김분이	20
홍승주	500
김정부	100
한의사협회	300
김승애	300
이진경	200
서영민	1,000
임영숙	300
손동학	1,000
월계	3,800

2 월

윤광남	100
장태수	200
이익환	300
남상욱	20
김재국	20
이재호	20
성정연	20
이윤경	50
윤영목	20
주정부	500
권지연	200
손동준	300
장부영	20
고부희	20
정재환	200
월계	1,990

3 월

송경애	20
IMASIA Con	500
David Kim	500
임용균(UW)	200
회관관리	50

김수영	50
김태산	20
황태근	20
이문항	20
서윤석	20
안현준	20
김현선	20
박지익	20
이풍훈	20
이덕자	20
홍선도	20
원장환	20
김진희	100
민학균(UW)	200
강동언(UW)	200
박남표(UW)	100
김성배	100
회관관리	50
회관관리	50
곽종세(UW)	300
임만식(UW)	200
오수동	20
이선녀	50
김부덕	20
이종소	20
김진면	20
신강우	20
이정순	20
최채화	20
박언연	20
장길수	20
강복부	20
김분이	30
강삼봉	20
김운봉	20
김응자	20
박창복	20
박종택	20
월계	3,220

4 월

이오갑	20
임상임	20
이봉수	20
오계희	50
오승근	100
박길용	20
배경애	20
김영희	20
박순갑	20
정갑돈	20
정택상	20
한창열	100
이민우	20
윤태희	10
곽다경	10
김생려	20
김홍숙	10
오계희	200
윤태근	300
고성권	300
이영조	200
김태강	500
박경희	300
신호범	300
김애련	20
이수잔	300
회관	50
강세흥	200
이상현	200
남대구	200
서영민	1,000
민학균	200
월계	4,770

5 월

회관관리	50
박병찬	300
손기남	500
회관관리	50



조성욱	200
서영민	1,000
류창명	100
임상택	20
김찬식	20
윤광남	300
구현우	200
회관관리	50
월계	2,790

6 월

P.I BANK	4,000
손동학	500
장진식	200
임영숙	200
박태호	200
임광희	300
한원섭	100
유철웅	100
장태수	200
윤봉열	500
유건호	20

박준우	200
김순아	300
이필영	300
한친회	800
오준걸	200
조성욱	200
박태호	100
윤광남	100
김준배	100
홍천해	300
신광수	300
김나오미	100
월계	9,320

7 월

장용석	300
함명호	100
정형돈	20
회관관리	50
홍승주	300
월계	770

8 월

총영사관	2,000
남상욱	500
김석민	200
손기남	500
월계	3,200

9 월

이지선	100
지은정	200
최지연	200
월계	500

10 월

김기현	300
안득찬	20
민광기	20
홍낙순	20
IRS	38.40
월계	398.40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립니다.
500 Full Color Business Card
\$49.00

425.656.9777 **INPRINT GRAPHICS**

역대 회장 및 이사장 명단

대	년도	회장	이사장	대	년도	회장	이사장
1대	1968	이 창희		20대	1987	윤 광남	고 봉식
2대	1969	이 선복		21대	1988	최 주찬	백 웅기
3대	1970	전 계상		22대	1989	한 원섭	김 형달
4대	1971	이 현기		23대	1990	장 동식	곽 종세
5대	1972	이 현기		24대	1990	곽 종세	이 점태
6대	1973	한 만섭	이 찬희	25대	1991	한 상국	백 인홍
7대	1974	구 범희	서 두수	26대	1992	이 광술	박 영민
8대	1975	신 호범	전 계상	27대	1993	윤 상인	김 형달
9대	1976	김 성길	이 현기	28대	1994	김 석민	황 동규
10대	1977	김 형진	신 호범	29대	1995	강 희열	장 수강
11대	1978	김 형진	오 준걸	30대	1996	민 학균	나 승인
12대	1979	조 성욱	김 현중	31대	1997	장 수강	온 상용
13대	1980	정 철식	엄 명보	32대	1998	김 재영	최 창만
14대	1981	강 동언	김 정부	33대	1999	강 석동	유 철웅
15대	1982	엄 명보	서 광신	34대	2000	유 철웅	송 태호
16대	1983	신 호범	이 동입	35대	2001	이 영조	정 재원
17대	1984	오 계희	엄 도승	36대	2002	김 준배	함 재명
18대	1985	오 준걸	한 만섭	37대	2003	홍 승주	임 광희
19대	1986	박 태호	최 경수	38대	04-05	서 영민	손 동학



100% 용자

- 다운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0% Down Payment)
- 모기지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O PMI)
- 중간에 재융자를 하시거나 파실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NO Prepay Penalty)
- 원금+이자 또는 이자만 내실 수도 있습니다. (Interest Only)
- 30년 고정, 15년 고정, 3년 고정, 5년 고정, 7년 고정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0ys Fixed, 15ys Fixed, 3/1 ARM, 5/1 ARM, 7/1 ARM etc.)

투자성 (Investment Property)

- 100% 용자 (30년 고정, 3/1, 5/1, 7/1, 이자 only 중 선택)

Option ARM

- 1% 이자 (30년 상환) : 매달 페이먼트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나 투자로 몇년 후 투자효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

상업용자

- SBA - Commercial

크레딧 교정 (Late, Charge Off, Bankruptcy, etc..)



President 알렉스 손

LG 용자

Lender's Group | Capital Funding

T : 425-454-7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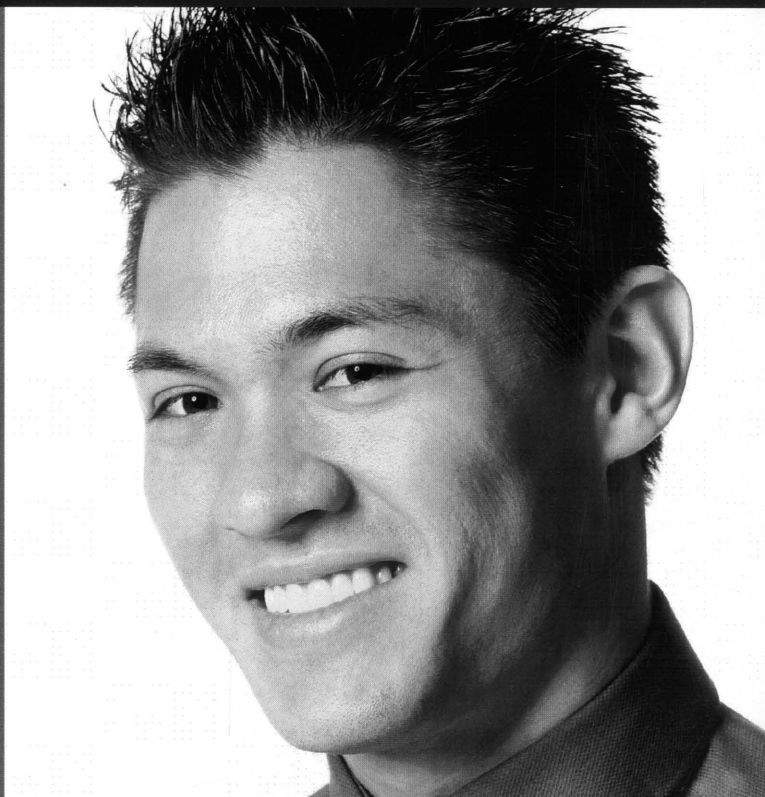
F : 425-454-7503

400 112th Ave. NE Suite 150 Bellevue, Washington 98004



Turn Your Individuality Into An Entrepreneurial Spirit!

당신안에 숨어있는 기업가적인 자질을 개발하세요.



American Family Insurance is currently recruiting individuals who want to empower their lives through business ownership. We provide our agents with exceptional training. Thereafter, they receive the marketing support and financial assistance needed to grow your individual business. If you are an individual looking for an outlet to express your entrepreneurial spirit call our state office at 425-644-3027 for more information.

American Family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Home Office - Madison, Wisconsin 53783
www.amfam.com

© 2004 001563-11/04

**AMERICAN FAMILY
INSURANCE**

All your protection under one roof